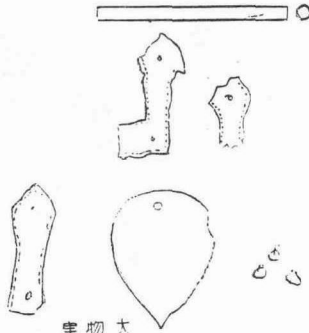


(1) 善山出土 金銅冠(S=1:3) (鄭明鎬製圖)



(2) 金銅管과 大環珞片과 殘片 (實物大)

이 되었다고 한다. 이 金銅冠은 出土 直後 大邱市의 古物商을 거쳐 個人의 所藏이라고 한다.

小形冠으로서 臺輪의 直徑 一三cm에 不過하다. 臺輪上緣 三處 (前面과 兩側面)에 三本の 出字形 同高(一七·五cm)의 立枝가 裝飾되었는바 (正面直 立 左右斜立) 各枝마다 對生의 三小枝 가 있어 尖端은 모두 寶珠形을 이루 었고 그 大小寶珠形의 中央과 分枝의 派出 및 屈曲點과 臺輪의 中心線上에 는 圓形突起를 打出하여 環珞片을 銅 線으로 連結하였다. 또 臺輪上下緣과 立枝形의 周緣을 따라 點線紋이 둘러 있는데 立枝形은 雙釘으로 臺輪에 固 定되어 있다.

다음에 左右 立枝下部의 臺輪에는 圓環 各一을 連結하여 있고 (이 圓環 에는 小環하나가 各各 달려있다) 그 옆 에는 形(點孔) 小圓板 (向左一個 殘存)이 結付되어 있는바 後者는 冠 兩側의 垂下飾을 위한 裝具로 보인다. 前者 即 左右의 圓環에는 半圓形의 金銅管長 四·一—四·四cm 徑 (向左侧에) 이것은 冠帶의 心線으로 짐 작된다. 이같은 推定은 五個의 曲合된 金銅圓管長 三·三cm이 一括出土되었 기 때문인데 이 環珞片은 冠帶 中央部에 垂飾되었던 것으로 보인다. 冠 全體에 靑綠銹가 보이며 鍍金도 곳곳에 殘存하는바 그 樣式은 慶南北에 서의 既出의 遺例와 同系이나 小形品으로 略化되었고 技工이나 裝飾手

法 또한 더욱 粗略하나 出土地가 거의 確實함과 金銅管狀冠帶의 形式은 注目할만 하다. 三國時代 新羅의 地方有力者의 古墳出土品으로 보이는 이 金銅小冠은 앞으로 他一括遺品과 같이 收拾되어야 할 것인바 保存 은 良好하나 立枝形一部와 環珞小片은 거의 缺落되었다.

楚亭 「送萬德歸濟州詩有小序」

李 謙 魯

正宗 十八、九兩년에 濟州道에는 連이어 大凶이 들어 貧民들은 餓死 之境에 이르렀다. 이 때에 金萬德(金海人)이라는 女人이 巨財를 던져 糧 穀을 사드려 數千生 命을 救濟하였다.

島民들의 稱誦이 藉 藉함은 勿論이려니 와 牧使 李禹鉉이 朝 廷에 奏達하였더니 正宗께서 嘉尙히 여 겨 그의 所願을 下 向하시매 萬德이「妾 은 別다른 所願은 없 아음고 다만 聖上께 서 계신 漢陽과 天 下의 名山인 金剛山 求景이 所願이로소 이다」하였다. 牧使 가 이 말을 上奏하였 더니 正宗께서 萬德



을 隸藥院에 女醫로 불러드려 馬匹을 下賜하시어 그의 所願을 이루게 하
 시었다. 萬德이 漢陽과 金剛山 探勝을 마치고 濟州道로 歸巢하려 하며
 當時의 鄕大夫들이 그의 德行을 讚揚하며 詩를 지어 惜別을 紀念하였는
 데 이 「送萬德歸濟州詩有小序」는 檢書官이었던 楚亭 朴齊家先生이 萬德
 에게 書贈한 詩文으로 正宗二十一年 丁巳(西紀一七九七年)에 先生이 四
 十八歲時에 長慶橋 西쪽에 있던 解語書齋에서 撰並書하신 것이다. 長慶橋
 는 現서울 大學校 文理大 앞 큰길에서 東崇洞 大學官舍로 들어가는데
 작으나한 洋灰다리가 놓여있는 附近에 있었으며 解語書齋는 詩人墨客들
 이 出入하던 어떤집의 書齋를 이름인지 알 길이 渺연하다.

先生은 詩文은 말할 것도 없고 書畫도 뛰어난게 잘 하였으며 奎章閣에
 檢書官으로 選任되여 李德懋 柳得恭 徐理修와 더불어 世稱 四檢書로 그
 이름이 中國에까지 떨치었다.

送萬德歸濟州詩有小序

歲乙卯耽羅大餓。女人萬德。捐粟振民。問奚願。願見金剛山。山在江原
 道淮陽府。距本牧水陸二千餘里。故事島中女。母過海。上奇其志。以女醫。
 召隸藥院。給驛遞。以成其願。聖人之體下。匹婦之獲所。古無與比。萬德
 由此名動播紳間。嗟乎。使萬德而男子乎。即不過假三品服。用萬戶印綬而
 止耳。惡能必傳於世哉。惟其掃蛾眉而活千命。抗脂粉而涉滄溟。朝京闕。
 訪名山。入世出世。綽有風致者爲可貴耳。萬德目重瞳。蓋異相也。豈佛心
 仙骨有夙世之種者歟。於其歸贈之以詩。
 大寶海外頭不出。五嶽誰能昏嫁畢。毛羅爲島界樽桑。屋主千年僅貢橋。橋
 林深處女人身。意氣南極無飢民。爵之不可問所願。願得萬二千峯看。翠表
 雲鬢一帆峭。弧南所照回一天笑。催乘駟騎向烟霞。佛日仙風環珮耀。眞覺
 新羅一念通。異相巾幗符重瞳。從知破浪乘風志。不是桑弧蓬矢中。
 丁巳夏季之三日貞姦居士書于長慶橋西解語畫齋

保寧 聖住寺址의 逸名塔碑

李 殷 昌

이 곳 中央殿址 西北便에 朗慧(無染)國師碑(國寶三二號)가 있는데 講
 堂址 後側에도 破壞된 龜趺와 螭首가 있어 또 하나의 塔碑로 推定된다.
 龜趺의 地臺石과 足部는 埋沒되었었고 頭部와 碑座는 殘石조차 찾아볼 수 없
 다. 龜甲周緣에는 半

圓紋이 連續되고 그
 안으로는 後面에 二
 重六角紋이
 前面에는 羽翼紋이
 彫刻되었으며 竝리
 는 左側 後足部에서
 나타나 背甲에 붙어
 있다. 이와같이 水
 禽의 날개를 表示한
 龜趺의 遺例는 특히
 注目할만 하다. 螭首
 註는 長方形으로 卷
 雲과 蟠龍이 뒤트는
 모습을 高內刻하였
 는데 正面 中央에는
 卷雲사이로 望月이
 떠 있는 것 같이 圓
 이 浮彫되었으나 題
 銘은 없다. 寺址古

